

공모전 수상작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주택의 공간특성 분석**

Analysis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Supportive Housing through Case Study of Competition Award-winning Works

Author 이연숙 Lee, Yeunsook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오아연 Oh, Ahyeo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장미선 Jang, Miseo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BK연구교수*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ies of supportive housing examples of the Top Ten Projects awarded by the AIA Committee on Environments. Information of 7 awarded works was collected and content analysis was made according to design concepts and spatial compositions. As a result, the major design concepts applied to the examples were categorized into 5 points of regeneration of community, accessibility to the community, enhancement of spatial capabilit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stakeholders and resident support services. Many supportive houses were built as a project to regenerate the deprived area and to reactivate the community through supplying supportive houses. In addition, supportive houses were developed by independent house type and shared house type and diverse scopes and sizes of community spaces were provided by including residents' exclusive community spaces that provide diverse services to vulnerable residents in addition to individual residential spaces and the community spaces that promote the consensus of residents and community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 that provides the direction of desirable spatial design for introducing supportive housings in Korea.

Keywords 지원주택, 공간구성, 디자인특성, 내용분석, 공모전 수상작
Supportive Housing, Spatial Characteristics, Design Characteristics, Content Analysis, Competition Winners Works

1.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반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주거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기준, 약 27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주거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도시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¹⁾ 이러한 비주택거주자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 원룸형 임대

주택,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²⁾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지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영구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³⁾ 이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도입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어 왔다.⁴⁾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원주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과 함께 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iseonjang@yonsei.ac.kr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6AUDP-B068892-04#)
본 논문은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2016-11-0022)에 의해 지원되었음.

1) 김준희, 비주택 주거안전기준 도입의 필요성: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99호, 2012.7, pp.8-26
2) 김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도시와 빈곤 제90호, 2011.1, pp.61-80
3) Ibid., p.74
4) 서종균, 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 빈곤 제104호, 2013.7, pp.72-97

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적 규범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특성⁵⁾⁶⁾을 다루고 있을 뿐, 실제 지원주택 사례의 공간적 특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적다.⁷⁾⁸⁾ 지원주택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지원주택의 보급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원주택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택들의 경우 미국건축가협회 산하 환경위원회의 Top Ten Projects에 선정되어 공간계획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인정받아, 이들 사례의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⁵⁾⁶⁾⁷⁾⁸⁾

이에 본 연구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지원주택 사례에 나타난 디자인특성과 공간구성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지원주택의 도입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간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고찰

2.1. 지원주택의 의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비용의 주거를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주택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전역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⁹⁾ 지원주택이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컴퓨터, 예술, 고교수준의 학습 등),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활기술훈련, 약물치료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육아서비스 등을 통해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추구한다.¹⁰⁾

2.2. 지원주택의 진화¹¹⁾

지난 30여 년 간 미국 전역에서 발달해 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단칸방을 빌려주는 여관(Single Room Occupancy Hotel: SRO)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도시의 인구증가와 주택시장 변화로 SRO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주거공간의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또한 열악해졌다. 이에 미국정부가 1970년 지역사회의 향의로 지역의 복지사무소, 지역사회조직,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SRO에 공급하게 한 것이 주택과 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주택으로 발전하였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SRO는 1980년대에 들어 연방자금지원을 받아 더욱 확산되었으나, 이처럼 지역사회로 편입된 SRO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점차 사라졌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를 지원하던 SRO의 급격한 소멸, 경기침체와 이민자의 증가로 사회취약계층은 적정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져 길거리와 비상대피소 등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비영리단체들이 후원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원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주택은 미국의 주거지원정책의 지원 하에 발전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선주거지원정책(Housing First)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Section 8 주거법이다. 선주거지원정책(Housing First)은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킨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노숙자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가 아닌 영구거주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1988년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민간단체 PATH Beyond Shelter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지역에서도 지원주택이 시행되고 평가하여 발전방안이 논의되어지고 있다.¹²⁾ 한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의 Section 8 주거법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하여 민간임대인에게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가운데, 임대료와 유틸리티를 지원하는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이 핵심이다. 개발된 특정 프로젝트(주택)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곳 중 개인이 선택한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세입자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주택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한데, HUD는 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는 제공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미국의 통합적인 주거지원시스템이 지원주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한국의 지원주택현황

5) 남기철,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비판사회정책 제34호, 2012, pp.5-45
 6) 김종천·김은주·오수정,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지원이 노숙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29권 제1호, 2003, pp.89-100
 7) 이연숙·박재현, 미국 뉴욕시 서포티브주택 '더 크리스토퍼' 현장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2015, pp.19-30
 8) 이연숙·박재현·치팅, 쇠퇴지역 내 신축형 서포티브주택의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제2호, 2016, pp.43-52
 9) 이연숙·박재현, op. cit.
 10) Cohen, M.D., Supported housing: Insights from the Robert Wood Johnson program on chronic mental illnes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제13권 제4호, 1990.4, pp. 43-51
 11) 이연숙·박재현, op. cit.

12) Volker Busch, Housing First Europe - Results of a European Social Experimentation Projecte, European Journal of Homelessness 제8권 제1호, 2014.8, pp.13-28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총 주택공급량의 약 15%에 지나지 않는다.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최근까지의 공급량을 살펴보면 총 주택공급량의 8% 수준이다.¹³⁾ 선진국의 경우 지원주택의 개념으로 주거는 물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개념이 생소하며, 현재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처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기존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동생활가정으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 제공 비용과 운영조직에 대해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¹⁴⁾ 또한 취약계층은 영구적인 거주를 위한 거처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거처는 영구적인 거처가 아닌 임시 거처로 제공되는 실정이다.¹⁵⁾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주택 도입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초기단계로, 해당 주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건축가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Top Ten Projects 수상작 중 지원주택 사례의 공간디자인특성과 구성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연구이다. Top Ten Award는 1997년부터 매년 주최되는 공모전으로, 전문가와 대중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선정하게 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며, 지속가능성 개념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때 지속가능성은 에너지, 재료, 디자인과 건강, 회복력(resilience)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수상작 선정의 기준은 건축물이 사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디자인되었고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미적으로 잘 디자인되었는지,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회복력,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정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AIA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환경사례 중 지원주택 사례로, 지원주택이 처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7개 지원주택이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한 사례들로, 계획 초기부터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디자인되어 있어 한국형 지원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주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선정된 지원주택 수상작들은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는데, 내용분석기법은 책, 웹사이트, 그림, 기타 문서 등의 기록물에 담긴 의도, 특성, 구조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¹⁶⁾ 지원주택 수상작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는 AIA의 공모전 웹사이트와 그 외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때 분석의 범위는 공간특성으로 한정하였는데, 지원주택의 특성 상 주택과 서비스의 특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수상작들의 선정 기준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상작들의 개별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분석할 표본의 구성이 중요한 내용분석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공간적 특성만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상작들은 초기부터 지원주택으로 계획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거주자에게 제공될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배려되어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원주택의 디자인특성과 공간구성특성만을 본 연구의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공간디자인특성은 공모전 심사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 개념과 지원주택의 공간특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디자인특성¹⁷⁾을 근거로 연구자가 각 사례를 소개한 문헌들에 언급된 디자인특성을 추출하였다. 공간구성특성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공간의 주된 사용자 기준으로 직원공간, 거주자커뮤니티 공간, 거주자 유니트, 커뮤니티 가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로비, 그 외 공용공간으로 분류¹⁸⁾하였으나, 본 연구의 사례들 중 일부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어 실내·외 커뮤니티 공간을 거주자 전용과 외부 개방형으로 구분하였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유닛은 개별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과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16) Jang, M. · Lee, Y. · Kim, J. Delineation of house design guidelines for fall preven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제7권, 2014, pp.185-215

17) 이연숙 · 박재현(2015)의 연구에서 기존 지원주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원주택은 에 나타난 지원주택의 디자인특성으로, 편의시설과의 인접성, 편리한 대중교통 등 지역사회로의 접근성 부분을 언급하였고, 인접 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 조성 등을 언급하였고, 이연숙 외(2016)의 연구에서는 쇠퇴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사회의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해관계자의 프로젝트 참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거주자의 질 향상 등을 언급하였다.

18) 이연숙 · 박재현 · 치팅, op. cit.

13) 이종권, 공공임대주택 50년 성과와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보고서, 2013

14) 서종균, 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 빈곤 제104호, 2013.7, p.93

15) 서종균, op. cit., p.95

<표 1>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의 틀

구분	분석 기준
공간디자인특성	①지역사회 물리적 재생 ②지역사회의 접근 ③건축물 성능향상 ④참여디자인 ⑤삶의 질 증진 지원
공간구성특성	①주거유닛(독립공간/공용공간) ②거주자전용 커뮤니티공간(실내/실외) ③외부개방형 커뮤니티공간(실내/실외)

분석 과정에 있어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사례를 분석하기 이전에 분석의 기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각자 사례를 분석한 후 일치하지 않는 분석 결과에 대해 그 기준을 함께 논의한 후 다시 분석해봄으로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간디자인특성 중 ‘지역사회 물리적 재생’의 경우 초기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특징이 언급되었으나,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이 노후지역의 재개발, 주변과 어울리는 규모와 디테일을 지닌 디자인, 지역사회 운동과 연계한 개발 계획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자간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물리적 재생’의 개념으로 최종 정리되었고 이를 분석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3.2. 조사대상 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저소득층 독인가구를 위한 소규모의 공유주택에서부터 노숙자 220세대를 위한 장·단기주택에 이르기까지 거주대상과 규모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례의 주요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1) Bud Clark Commons, Oregon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올드타운에 위치하는 Bud Clark Commons는 2011년 이 지역의 노숙자를 위하여 지어진 주택이다. 3,000여평의 단지에 8층 단독형 건물로 조성된 이 주택의 1층에는 임시거주자를 위한 공유주택이, 2-3층은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공간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데이센터가 위치해있고, 4-8층은 장기 거주자를 위한 단위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택에는 총 220세대가 함께 거주하는데, 90명의 개별 거주자를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유주택과 130세대의 영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임시주택은 파티션을 통해 12개의 작은 공간으로 분할된 2개의 방으로 구성되며, 공유형 화장실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영구주택은 단독세대로서 독립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tudio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Tassafaronga Village,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재개발지역에 위치하는 Tassafaronga Village는 2010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어졌다. 6,700여평의 넓은 대지를 크게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3층의 연립주택 총 22개가 전체 단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 주택에는

총 179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규모에 따라 Studio형, 1bed형, 2bed형, 3bed형 중 선택하여 거주가능하고, 특별히 아파트 거주자들은 옥외 커뮤니티공간을 공유하며 지내게 된다.

(3) Merritt Crossing Senior Apts,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 위치하는 Merritt Crossing Senior Apts는 2012년 이 지역의 노인노숙자와 복합장애인을 위하여 지어진 주택이다. 1,400여평의 단지에 6층 단독건물로 조성된 이 주택의 1층에는 커뮤니티공간, 2-5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주택에서는 총 70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공간의 거주 대상자에 따라 주거공간유형이 나누어진다. 35세대는 노숙자 단독세대로 Studio형과 1bed형의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나머지 35세대는 노숙자와 복합장애를 가진 2bed형 주거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지내는 공유세대이다.

(4) Step Up on 5th,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하는 Step Up on 5th는 2009년 이 지역의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을 위하여 지어졌다. 2,100여평의 단지에 5층 단독건물로 조성된 이 주택의 1층은 상가, 오피스, 커뮤니티공간으로, 2-4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주택에서는 총 46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모든 세대가 Studio형으로 독립적인 삶을 보장받고 있다.

(5) Gish Family Apartment,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다운타운에 지어진 Gish Family Apartment는 2008년 이 지역의 평균에 비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과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어진 주택이다. 2,100여평의 단지에 4개층의 단독건물로 조성된 이 주택의 1층은 상가, 커뮤니티공간으로, 2-4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주택에는 총 35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 대상자에 따라 주거공간유형이 나누어진다. 저소득층 22세대는 2bed과 3bed형에 거주하고, 발달장애인 13세대는 Studio형 거주한다.

(6) Sweetwater Spectrum Community,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소노마 중심가에 위치하는 Sweetwater Spectrum Community은 2013년 이 지역의 성인자폐아를 위하여 지어진 주택이다. 이 주택은 460여평의 단지에 5개의 단층 건물로 조성되었는데, 그 중 4개 건물은 주거전용공간으로, 나머지 1개의 건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4개의 주거건물에는 각각 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 사례주택에는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개별 거주자들은 Ensuite형(개인화장실이 설치된 침실) 개인공간을 보유하되, 그 외 부엌과 거실공간은 4명의 거주자가 함께 공유하며 지내게 된다.

<표 2> 최근 7년간(2009-2015) AIA TOP Ten Award 수상작 중 지원주택사례 개요개관

NO	수상작명 (지역)	설립연도 (수상연도)	거주대상자	규모	용도	구성	세대수	주거유형	거주대상 별 주거유형	건물 이미지
1	Bud Clark Commons (오리건)	2011 (2014)	노숙자	106,000ft ² (3,000평)	주거전용	8층 1개동 단독형 -1층:임시주거 -2-3층:데이센터 -4-8층:주거전용	총 220세대 -영구주거130세대 -임시주거 90세대	-1Room -Studio	영구주거 -Studio 임시주거 -1Room	
2	Tassafaronga Village (캘리포니아)	2010 (2015)	저소득층 독신 저소득층 가족	238,000ft ² (6,700평)	주거전용	3층 22개동 분산형 -연립주택형 -아파트형	총 179세대	-Studio -1Bed R -2Bed R -3Bed R	구분없음	
3	Merritt Crossing Senior Apts. (캘리포니아)	2012 (2013)	노인노숙자 복합장애인	50,000ft ² (1,400평)	주거전용	6층 1개동 단독형 -1층:커뮤니티공간 -2-5:주거전용	총 70세대 -노숙자35세대 -노숙자&장애인35세대	-Studio -1Bed R -2Bed R	노숙자 -1Room -1Bed R 복합장애인 -2Bed R	
4	Step Up on 5th (캘리포니아)	2009 (2011)	노숙자 지적장애인	31,600ft ² (900평)	복합기능 -주거 -상가 -오피스	5층 1개동 단독형 -1층:상가,오피스, 커뮤니티공간 -2-4층: 주거전용	총 46세대	-Studio	구분없음	
5	Gish Family Apartment (캘리포니아)	2008 (2009)	저소득층 가족 발달장애인	75,200ft ² (2,100평)	복합기능 -주거 -상가	4층 1개동 단독형 -1층:상가,커뮤니티공간 -2-4층:주거전용	총 35세대 -저소득층22세대 -장애인13세대	-Studio -2Bed R -3Bed R	저소득층 -2,3Bed R 발달장애인 -Studio	
6	Sweetwater Spectrum Community (캘리포니아)	2013 (2015)	지적장애인	16,315ft ² (460평)	주거전용	단층 5개동 분산형 -단독주택형(4개동) -커뮤니티홈(1개동)	총 16세대	-Ensuite	구분없음	
7	Special No. 9 House (뉴올리언즈)	2008 (2010)	저소득층 독신	1,520ft ² (43평)	주거전용	필리티형 단층 단독형 -공유주택	총 4세대	-1Room -Ensuite	구분없음	

(7) Special No. 9 House, New Orleans

뉴 올리언즈주의 도시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업 지역 로워나인스위드에 위치하는 Special No. 9 House는 2008년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 독신가구를 위하여 지어진 주택이다. 43여평의 대지에 단층의 단독주택을 짓고, 4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조성하였다. 개별 거주자는 개인실을 보유하고, 욕실, 부엌, 거실을 4명의 거주자가 공유하며 지내게 된다.

4.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선정된 사례의 건물계획과정에서 반영된 공간 디자인특성과 구성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1. 공간디자인특성

선정된 지원주택에 적용된 공간디자인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지역사회 물리적 재생’의 경우 쇠퇴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고급화, 주변과 어울리는 규모와 디자인, 지역사회 운동과 연계, 지역사회 공적자금 투입의 5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표 3> 7개의 사례 중 5개가 쇠퇴지역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례로, 지역에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활성화하려는 지역사회 운동과 함께 연계된 사례가 많았다(사례 1,2,4,5,7).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재생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사례 1의 경우, 전례 없는 수준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Old Town/Chinatown과 고급 주거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의 노숙자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지역을 고급스러운 주거단지로 재생한 사례이다. 또한 본 사례는 Historic Union Station 인근의 Portland 다운타운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사회로의 접근’ 또한 우수하다.

<표 3> 대상 사례에 적용된 공간디자인특성 분석

특성	세부요소	사례						
		1	2	3	4	5	6	7
지역 사회 물리적 재생	쇠퇴지역의 재개발	●	●	●		●		●
	지역의 고급화	●						
	주변과 어울리는 규모와 디자인		●	●				●
	지역사회 운동과 함께 연계	●	●		●	●		●
지역 사회와 연계	지역사회 공적 자금 투입	●		●				●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위치	●	●	●	●	●	●	
	주변 편의시설 이용 용이	●	●	●	●	●	●	
건축물 성능 향상	시내까지 도보(혹은 자전거)로 이동가능한 거리				●		●	
	실내공기의 질 개선	●	●	●	●	●	●	●
	에너지 절감 방안 도입	●	●	●	●	●	●	●
	쾌적한 실내환경조성 방안도입(채광,냉난방)	●	●	●	●	●	●	●
참여디자인	재난방지형 주택 모델 계획							●
	디자인 과정에 거주자, 지역 주민 참여		●					●
	개발 전 과정을 이해관계자가 모니터링		●	●	●	●	●	●
삶의 질 증진 지원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제공							●
	저렴 주택의 공급	●	●	●	●	●		●
	거주자 맞춤형 주거공간제공	●			●			
	거주자 맞춤형 가사지원서비스	●		●		●	●	
	거주자 여가/교육프로그램 운영	●			●	●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교육프로그램 운영	●			●		●		
지역주민을 위한 데이센터 운영	●					●		

1: Bud Clark Commons 2: Tassafaronga Village 3: Merritt Crossing Senior Apts.
4: Step Up on 5th 5: Gish Family Apartment 6: Sweetwater Spectrum Community
7: Special No. 9

둘째, ‘지역사회와 접근성’의 경우, 해당사례가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거나,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 혹은 시내까지 도보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는 시설의 입지에 관한 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7번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는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인근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이 좋은 곳은 위치해 있었다. 특히, 4번과 6번 사례는 타운 센터까지 도보 혹은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사회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축물 성능향상’ 특성의 경우, 실내공기의 질 개선, 에너지 절감 방안 도입(지속가능성), 채광과 냉난방 등 쾌적한 실내환경조성 방안도입, 재난방지형 주택 모델 계획의 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사례들은 AIA award의 요건 상 지속가능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했기 때문에 7개 모든 사례가 지속가능 디자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각 사례들은 환기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열활용, 빛물관리시스템,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요소를 각 사례지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 사례 7은 건축물 성능향상을 위한 요소들이 가장 잘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LEED Platinum 인증을 받은 본 사례는 에너지 성능과 건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하고 값비싼 환기기술을 활용하기 보다는 더 좋은 단열재사용, 효율적인 공기조화시스템의 도입,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 남측 입면의 통합적 격자구조물(trellis)

의 설치, 지붕 태양전지판(photovoltaic arrays)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넷째, ‘참여디자인’ 특성의 경우, 그 세부 요소로서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주택의 기획에서부터 공간 디자인에 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디자인과정 뿐 아니라 주택이 지어지고, 거주 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례 6의 경우, 디자인과정에서 에리조나 주립대학의 전문가, 거주자들이 디자인팀과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지역주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 지역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받았다. 또한, 거주기간이 1년 지나는 시점에는 도미니칸 대학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이 공동으로 해당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후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를 진행하여 지원주택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성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설치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두 옵션(roof deck, sunscreens, mesh형 격자구조물을 포함하는 garden prototype과 roof deck 대신 피난장소를 제공하는 gable prototype)을 주어 선택하게 하였고, 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유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증진 지원’ 특성의 경우, 크게 거주자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요소로 구분된다. 거주자의 질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의 공급,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 맞춤형 가사 지원 서비스,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일부 사례(사례 1, 6)에서는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과 데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삶의 질 증진’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사례 1의 경우,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연속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제공하되 장기 거주자에게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외에도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였다. 한편,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방된 데이센터를 운영하여 거주자들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도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4.2. 공간구성특성

선정된 지원주택들의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유닛의 독립공간은 침대만 있는 원룸형에서부터 개별

화장실을 포함한 Ensuite형, 개별 화장실에 주방공간까지 갖춘 Studio형, 그리고 분리된 침실이 있는 1bed형부터 3bed형을 기본 형태로 하는 9개 주거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4>

다양한 주거공간의 유형 중 Studio형이 가장 많은 지원주택 사례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주택을 여러 거주자가 공유하는 소규모 주택(사례 6,7)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 Studio형을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개별 거주자가 개별 세대를 구성하는 형태의 지원주택에서 개별 화장실과 작은 주방을 갖춘 Studio형은 거주자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최소 공간 단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다양한 독립 주거공간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 2의 경우, 거주대상이 저소득층 가구인 점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그들의 다양한 주거요구(가족규모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거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거주자들이 독립된 세대 내에서 생활하도록 단위주택형으로 계획된 사례 2, 4, 5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공간을 타 거주자와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각 사례에 계획된 공용공간은 주로 주방, 거실, 욕실, 세탁실로, 많은 사례(사례 1, 3, 6, 7)에서 공유주방을 설치하였고, 1번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거실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계획하였다. 2-4명의 임시 거주자들이 침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된 사례 1의 경우, 거주자들이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실을 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커뮤니티 공간은 크게 거주자 전용과 외부 개방형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각각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으로 구분된다. 거주자전용 실내 커뮤니티공간은 공동주방, 화장실, 세탁소, 직원사무실, 관리사무실, 피트니스, 상담실, 라운지, 미팅룸, 커뮤니티룸, 발코니, 테라스, 대기공간, 놀이공간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직원사무실과 세탁소, 커뮤니티룸은 가장 많은 사례에 설치되어 있었다. 거주자전용 실내 커뮤니티공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례 3의 경우, 위의 공간 외에도 공용 주방, 관리사무실, 라운지, 발코니가 조성되어 있었다. 한편, 단독주택형 지원주택인 사례 7은 다목적의 대기공간으로 조성된 실내 커뮤니티공간만이 별도의 건물로 조성되어 있었다. 실외 커뮤니티공간은 마당, 정원, 재배지로 분류되는데, 발코니와 마당은 가장 많은 사례에 설치된 실외 커뮤니티공간이다. 사례 3은 모든 거주자 전용 실외 커뮤니티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사례 1, 4, 6은 거주자 전용 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표 4> 대상 사례의 공간구성특성 분석

공간구성	사례	세부구성요소						
		1	2	3	4	5	6	7
독립공간	1Room							●
	Ensuite						●	●
	Studio	●	●	●	●	●		
	1Bed, Bath & Kit		●					
	1Bed, Bath, Kit & Bal			●				
	2Bed, Bath & Kit		●	●				
	2Bed, Bath, Kit & Bal					●		
	3Bed, 2Bath & Kit		●					
	3Bed, 2Bath, Kit & Bal					●		
	임시거주자용 공유침실	●						
공용공간	주방	●		●			●	●
	거실			●			●	●
	욕실			●			●	●
	화장실	●						
	샤워실	●						
	세탁실	●					●	●
거주자전용 실내공간	공용 주방			●	●			
	공용 화장실				●		●	
	세탁소	●		●	●		●	
	직원사무실	●	●	●			●	
	관리사무실			●	●	●		
	피트니스	●						
	상담실	●						
	라운지			●				
	미팅룸					●		
	커뮤니티룸		●	●	●	●		
	발코니	●		●		●		
	테라스					●	●	
	대기공간							●
	놀이공간					●		
실외공간	마당		●	●		●		
	정원			●				●
	재배지(Orchard)			●				
외부개방형 실내공간	업무공간				●	●		
	상점				●	●		
	컴퓨터실				●			
	예술실				●			
	데이센터	●					●	
커뮤니티공간	마당	●						
	정원		●				●	
	마을농장		●				●	
	재배지(Orchard)						●	
	테라피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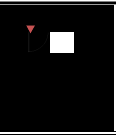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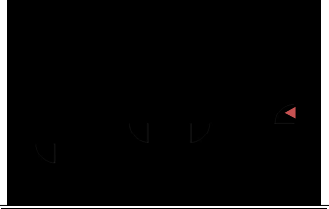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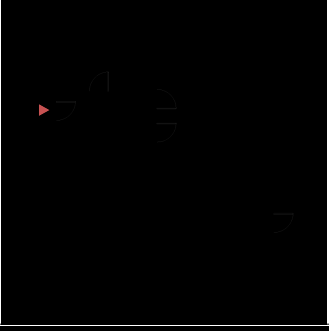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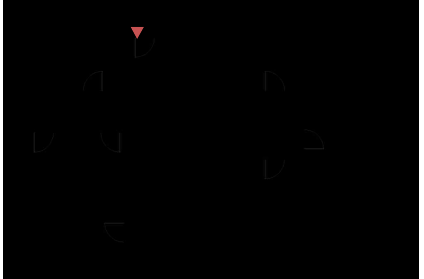
1: Bud Clark Commons 2: Tassafaronga Village 3: Merritt Crossing Senior Apts.
4: Step Up on 5th 5: Gish Family Apartment 6: Sweetwater Spectrum Community
7: Special No. 9

외부개방형 커뮤니티공간은 거주자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내에 설치된 공간은 업무공간, 상점, 컴퓨터실, 취미실, 데이센터가 있다. 가장 많은 사례에 적용된 외부개방형 실내 커뮤니티공간은 사무공간, 상점, 데이센터로 나타났다. 사례 4의 경우 주거·업무·상업공간이 함께 조성된 복합 건물로서 가장 많은 개방형 커뮤니티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업무공간, 상점, 컴퓨터실, 취미실이 모두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사례 1과 6은 요리수업공간, 운동공간, 도서관, 아트룸, 상담실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외공간은 마당, 정원, 마

을농장, 재배지, 테라피폴로 분류되었다. 정원과 농장이 사례 2와 6에 적용되었고, 실내 데이센터가 있는 사례 1과 6은 외부에 마당과 정원을 두어 데이센터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공간구성의 특징 중 개별 거주유닛 내 독립공간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로 대표적 평면을 선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 1Room형은 개인침실만으로 이루어진 12m²(약 4평)의 옷장과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누워서도 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볼 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침대를 배치하였다. 개별 욕실이 있는 Ensuite형은 26m²(약 8평)의 공간으로, 원룸형과 유사하게 침대가 배치되었으나, 약 4m²(약 1.5평)의 개별 화장실에 변기와 세면대, 욕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Studio형은 개방된 침실공간에 연계된 주방과 별도의 욕실을 갖춘 형태로, 출입구 인근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안쪽에 개방된 구조의 침실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침실공간은 침대와 옷장이 들어갈 수 있는 36m²(약 11평)의 공간이었고, 욕실은 변기와 세면대, 샤워부스를 갖춘 8m²(약 2.4평)의 공간이었다. 이 주택에서는 개별취사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욕실 사용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외의 거주공간 유형은 분리된 침실의 수에 따라 1Bed형, 2Bed형, 3Bed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유형부터 각 세대에서 개별로 접근 가능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1Bed형은 1개의 침실, 주방, 주방과 연계된 거실, 그리고 욕실을 갖춘 68m²(약 20평)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침실은 16m²(약 5평)의 공간에 침대와 옷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발코니 창을 통해 외부 조망이 가능하게 계획되었다. 욕실은 7m²(약 2평) 규모로 변기와 세면대, 욕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1Bed형은 배치된 세대의 위치에 따라 5m²(약 1.5평)의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2Bed형은 2개의 침실과 함께 독립된 욕실과 주방, 거실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총 139m²(약 42평) 규모로 계획되었다. 현관과 인접한 곳에 욕실과 주방을 두고, 그 정면에는 침실을 두었으며, 주방과 연계된 곳에 거실을 배치한 구조이다. 22m²(약 7평)의 침실 2개와 7m²(약 2평)의 화장실은 변기와 세면대, 욕조를 구비되어 있었고, 발코니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10m²(약 3평)의 면적이 추가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례 2, 3, 5에만 설치된 2Bed형에는 거주자들이 가족단위로 살아가게 된다. 3Bed형은 3개의 독립된 침실과 함께 거실과 주방, 2개의 욕실을 갖춘 총 147m²(약 44평)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 유형은 22m²(약 7평)의 침실 2개와 그보다 작은 (약 5평)의 침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거주자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이다. 2개의 화장실은 약 2평 규모로 변기, 세면대, 욕조가 구비되어 있고, 일부 세대에는 9m²(약 3평)의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표 5> 대상 사례에 적용된 독립거주공간의 유형 구분

구분	평면도	면적
1Room형		12m ² (약 4평)
Ensuite형		26m ² (약 8평)
Studio형		36m ² (약 11평)
1Bed형 (with bath, kitchen & balcony)		68m ² (약 20평)
2Bed형 (with bath, kitchen & balcony)		139m ² (약 42평)
3Bed형 (with 2baths, kitchen & balcony)		146m ² (약 44평)

5. 결론

본 연구는 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획일적 유형과 제한적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던 방식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요구되는 적정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주택에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주택의 도입되어야 한다는 배경하에 시작되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의 공급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최근에서야 그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지원주택의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수용할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원주택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지원주택 사례 중 미국건축가협회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Top Ten Projects 수상작을 대상으로 각 사례들에 적용된 디자인특성과 구성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선정된 사례의 대다수가 지역사회의 유희공간을 활용하거나, 쇠퇴지역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지원주택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지원주택은 침체된 지역을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 둘째, 많은 사례가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거나 지역사회 중심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취약계층 주거공간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활용된 방법으로,¹⁹⁾ 지원주택을 도입함에 있어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입지에 위치한 지원주택은 거주자에게 지역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주택내의 서비스 공간 마련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원주택 사례들은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지원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을 통해 주택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지원주택의 계획단계에서 거주예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디자인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의 사례들은 디자인 과정에서 거주자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간접적으로 디자인과정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축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사용자의 요구를 디자인에 반영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주거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²⁰⁾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쉬운데, 거주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계획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애착감을 형성하게 하여 추후 시설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원주택의

계획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의 사례들은 거주자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주거공간제공부터 생활지원, 여가 등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사회적 지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웃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는 취약계층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²¹⁾ 이처럼 지원주택은 개별 주거공간의 공급만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례들은 그 공간규모와 거주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족 규모의 생애주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획일화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결국 주거불안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원주택에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규모를 살펴본 결과, 1인 거주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주거유형으로 Studio형을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 유형은 침실 외에 주방과 욕실공간을 포함하는 36㎡의 규모이다. 우리나라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면적기준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주방이 포함된 공간을 제공하되, 그 면적을 최소 14㎡로 정하고 있어²²⁾, 지원주택 Studio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면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원주택의 개별 주거공간의 계획 시 가구규모에 따른 적정 주택규모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공간은 지원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공간 구성의 다양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주택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실내 커뮤니티공간은 거주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실외 공간은 지역사회에 개방된 형태가 많았다. 지원주택이 주거공간 제공 외에 서비스 지원의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사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과 관리자를 위한 공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19) 이연숙, op. cit., p.28

20) 이정민, 현대 공간디자인에 있어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제6호, 2006, pp.89-100

21) Garciano, Affordable Cohous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pportive Relational Networks in Mixed-Income Housing,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law 제 20권 제2호, 2011, pp.169-192

22) 국토해양부,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2011

있었고, 자립생활이 힘든 지적장애인이거나 노숙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여유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마당, 정원, 재배공간들을 두어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고,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치유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원주택모델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택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우수 지원주택에 반영된 다양한 공간디자인특성과 공간구성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주택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비록 본 연구가 공간디자인분야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사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사례연구의 형태가 아닌 관계로 본 연구의 지원주택들이 거주자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라는 지원주택의 통합적인 기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1. 이종권, 공공임대주택 50년 성과와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보고서, 2013
2. Brian Greenberg, Supportive housing best practices in a mid-sized US urban community, Housing, Care and Support 제16권 제1호, 2013
3. Cohen, M.D., Supported housing: Insights from the Robert Wood Johnson program on chronic mental illnes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제13권 제4호, 1990
4. Garciano, Affordable Cohous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pportive Relational Networks in Mixed- Income Housing,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law 제20권 제2호, 2011
5. Volker Busch, Housing First Europe - Results of a European Social Experimentation Project, European Journal of Homelessness 제8권 제1호, 2014
6. 김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도시와 빈곤, 제90호, 2011
7. 김종천·김은주·오수정,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지원이 노숙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29권 제1호, 2003
8. 김준희, 비주택 주거안전기준 도입의 필요성: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99호, 2012
9. 남기철,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비판사회정책 제34호, 2012
10. 서종균, 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 빈곤 제104호, 2013
11. 이연숙, 박재현, 미국 뉴욕시 서포티브주택 '더 크리스토퍼' 현장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2015
12. 이연숙, 박재현, 치팅, 쇠퇴지역 내 신축형 서포티브주택의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제2호, 2016
13. 이정민, 현대 공간디자인에 있어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제6호, 2006
14. 국토해양부,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2011
15. <http://www.aiatopten.org>

[논문접수 : 2016. 05. 31]
 [1차 심사 : 2016. 06. 23]
 [게재확정 : 2016. 07. 01]